http://doi.org/10.34227/tjocc.2020..19.87

‘정보양식론’의 논리적 딜레마에 관한 3가지 물음* – 마크 포스터의 이론을 공유경제 국면에서 재검토하다 –

김건우**

국문초록

이 논문은 마크 포스터의 정보양식론을 이론적인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우버의 성공과 실패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 및 네트워크 중심의 공유경제가 기존의 산업경제보다 언제나 우세한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기술·경제 양식이 갈등하며 공존하는 현상은 정보양식이 생산양식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포스터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구조적 유사성’을 보인다. 이와 같은 양상은 공유경제라는 현상을 통해 정보양식론을 이론적으로 재고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정보양식론에 대한 비판은 포스터와 인식론적 입장을 달리하는 외재적 비판이 많았다. 반면, 이 글에서는 포스터의 이론을 내재적으로 검토한다. 포스터의 정보양식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스터가 기술결정론자로 분류하는 비판이론가들과 포스터는 기술결정론에 관한 논의를 통해 도출된 몇 가지 속성을 적용했을 경우, 논리적인 차원에서 도구주의자로 간주할 수 있다. 둘째, 정보양식이 생산양식을 대체할 수 없다는 명제는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이 두 가지 양식이 도구주의 패러다임을

---

* 이 글에 나오는 마크 포스터의 이론 분석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는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주관으로 2009년 2월 11일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서강대-교토대 대학원생 학술대회: 미디어와 교육, 문화정책의 한일비교’에서 발표한 원고(“A Critical Assessment of Mark Poster’s Mode of Information, Its Epistemological Ground, and Logical Coherence”)에서 시작됐다. 이후 같은 해 5월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 학술대회를 통해 영문 원고를 우리말로 번역·수정해 발표하면서 논지를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었다(「정보양식론의 인식론적 토대와 그 논리적 일관성에 관한 물음」). 『문화콘텐츠연구』에 투고한 이 논문에는 영어 및 한국어 원고의 아이디어가 반영되었으나 논리 전개에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전면 수정했음을 밝힌다.

**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교양대학 강사(Part-Time Instructor, Liberal Arts College, Chungwoon University, Incheon).

접수일(2020년 7월 17일), 수정일(2020년 8월 10일), 게재 확정일(2020년 8월 11일)

공유하고 있다면,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당연한 주장은 무의미한 진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보양식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도구주의라면, 생산양식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도구주의로 분류할 수 있겠다. 셋째, 정보양식을 후기 구조주의 언어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논리적인 오류로 볼 수 있다. 도구주의의 인식론적 노선에 속한 정보양식이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려면 언어를 의미 전달의 중립적인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와 달리, 후기 구조주의 언어이론은 의미 전달에 치중하는 언어의 지시적인 도구적 기능보다 자율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언어가 의미 전달을 위한 중립적 수단이라고 보는 관점과 언어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패러다임의 양립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보양식론의 분석으로 얻을 수 있는 함의는 이론을 현상에 성급하게 적용하기 전에 이론 구성에 논리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주제어: 정보양식, 생산양식, 기술결정론, 도구주의, 후기 구조주의, 마크 포스터, 공유경제

Ⅰ. 들어가는 말

1. 공유경제의 양면: 우버의 성공과 실패

문화인류학의 토대를 놓은 에드워드 타일러(Edward Tylor)는 문화를 "사회 구성원의 자격을 갖춘 인간이 습득한 지식, 믿음, 예술, 도덕, 법률, 관습, 혹은 여타 다른 기능과 습성 등을 아우르는 총체적 복합체"[1]로 정의했다. 문화가 이처럼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 복합체'라면, 공유경제(sharing economy)만큼 그 정의에 부합하는 현상도 드물다. 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하는 디지털 네트워크 플랫폼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에 힘입은 공유경제가 인간의 사회 문화적 풍경 전반을 현저하게 바꾸어놓았기 때문이다.[2]

일례로, 2009년 출범한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Uber)'는 공유경제의 대표모델이다. 우버의 혁신적인 기술 토대는 실시간 '디지털 네트워크 매칭 플랫폼(digital network matching platform)'이다.[3] 이 플랫폼에서는 기존의 산업경제에서 존재하는 생산자(기업)와 이용자(소비자)의 경계가 사라진다. 막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공급자와 이용자를 즉시 주선한다. 사용처를 찾은 자원은 유용성을 획득한다. 가입자와 수익이 급속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한다.[4] 2018년 현재 우버의 기업 가치는 135

---

1) Tylor, E., *Primitive Culture: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Art, and Custom*, John Murray, 1871, p.1.

2) Sundadarajan, A., *The Sharing Economy: The End of Employment and the Rise of Crowd-Based Capitalism*, MIT Press, 2016, p.2.

3) Geissinger, A., Laurell, C., & Sandström, C., "Digital Disruption beyond Uber and Airbnb—Tracking the Long Tail of the Sharing Economy",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155*, 2020; Matzler, K., Veider, V., & Kathan, W., "Adapting to the Sharing Economy", *MIT Sloan Management Review*, *56*(2), 2015.

4) Mayer-Schönberger, V. & Cukier, K., *Big Data: A Revolution that Will Transform How We Live, Work, and Think*,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3; Srnicek, N., *Platform Capitalism*, Polity, 2017, pp.6, 39-42.

조 원에 달한다. 20세기 미국 산업 자본주의를 견인해 온 3대 자동차 기업들(제너럴모터스, 피아트크라이슬러, 포드)이 100년 넘게 걸린 성과를 10년 만에 달성했다.[5] 하지만 우버가 단기간에 급성장했다고 정보와 데이터 같은 비물질적 자원을 사용하는 디지털 네트워크 플랫폼이 산업 자본주의의 생산양식을 폐기하며 대체한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거대 자본과 생산 설비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에서 단단해진 오래된 사회의 형식들(을)…넘어…새롭고 역동적인 경제 패러다임"[6]이 기존의 산업적 생산양식의 저항 없이 안착할 수 있을까?

한국시장에서 우버는 택시면허 사업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5년 전에 퇴출당했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7] 사업자를 자처하는 우버에게 운수업은 사업 콘텐츠의 하나일 것이다. 우버는 산업적 생산양식 아래서 면허제도가 유발한 경제적 비효율성, 소비자 비용부담, 효과적 자원할당의 난점 등을 개선했다는 찬사도 받았다.[8] 그런 우버조차 한국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선 불법 택시에 불과했다. 디지털 공간의 창조적 공유와 이를 구현하는 시스템이 오프라인의 기성 제도나 생산양식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 공유경제와 산업경제 '공존 국면': 정보양식론 분석의 계기

공유경제와 같이 새로운 기술 양식은 마찰 없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 기술사 연구자 캐롤라인 마빈(Carolyn Marvin)에 따르면, 역사적으

---

5) 「우버 기업가치 130조…'미국車 빅3'보다 커졌다」, 『매일경제』, 2018년 10월 18일자 (검색일 2020년 6월 21일).

6) Curran, J., Fenton, N. & Freedman, D., (Misunderstanding the Internet (2nd ed.)), 김예란·박성우, 『인터넷, 신화를 넘어 공공성으로』, 컬처룩, 2017, 168쪽. 괄호 첨가.

7) Cannon, S. & Summers, L., "How Uber and the Sharing Economy Can Win Over Regulators", *Harvard Business Review Digital Articles*, October 13, 2014, p.3.

8) Cramer, J. & Krueger, A., "Disruptive Change in the Taxi Business: The Case of Uber",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 Proceedings, 106*(5), 2016, p.177.

로 볼 때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도입은 편리함만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기존의 시장 진입자들과 불가피하게 경합하며 공생한다.[9] 디지털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정보와 데이터를 수익창출의 자원으로 삼는 공유경제의 양식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물질적 자원과 조직된 노동력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사회의 경제 양식과 갈등하면서도 공존한다. 이처럼 정보와 데이터 중심의 새로운 경제 양식(공유경제)이 전통적인 산업경제를 대체하지 않고 공존하는 국면은 통찰력 있는 최초의 뉴미디어 이론가 중 한 명인 마크 포스터(Mark Poster)[10]가 주창한 정보양식론(mode of information)의 이론적 시의성을 다시 주목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공유경제를 상징하는 우버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포스터의 정보양식론을 이론적으로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근거는 공유경제와 정보양식론이 '동형이종(isomorphism)'[11] 혹은 '가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e)'[12]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 용어들은 각 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구조적 유사성을 보일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가령, 공유경제의 우버와 산업경제의 운수업자가 상호 대립하면서도 병립하는 현상의 구조는 "정보양식이란 용어는 생산양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회복"시키며[13], 정보양식으로 인해 "오래된 제도가 사라지거나 열등한 위치에 놓이지 않으며"[14], "정보양식의 이론

9) Marvin, C., *When Old Technologies Were New: Thinking About Electric Communication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p.4-5.

10) Miller, V., *Understanding Digital Culture* (2nd ed.), Sage, 2020, p.16.

11) Wimmer, R, & Dominick, J., *Mass Media Research: An Introduction* (6th ed.), Wadsworth, 2000, p.50.

12) Wittgenstein, L., (Philosophische Untersuchungen), 이영철, 『철학적 탐구』, 서광사, 1993.

13) Poster, M., 김균, 「미디어 시대의 문화 변동, 그 양상과 의미」(인터뷰), 『현대사상』, 3권 1호, 민음사, 1999, 47쪽.

14) Poster, M., *Critical Theory and Poststructuralism: In Search of a Context*,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p.126.

으로 하여금 그것(생산양식의 이론)을 대체한다는 식의 극단”[15]을 지양한다는 포스터의 주장과 논리적으로 상응한다. 기술 도입의 과정이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 아니라 ‘이것인 동시에 저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공유경제 현상과 정보양식의 이론적 진술에서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다.[16] 공유경제의 현상과 포스터의 정보양식론은 사회가 변화하는 시기에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양식이 병존하는[17] 사회 구조적 특징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포스터의 정보양식은 특정 시기에 지배적인 커뮤니케이션 형식(대면과 구어, 문자와 인쇄, 전자적 매개에 의한 소통)으로 역사를 구분하는 개념이다. 마치 공유경제에서 풍부한 정보와 데이터가 디지털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주요 자원[18]인 것처럼, 오늘날의 문화에서 정보의 중요성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19] 마르크스는 역사를 단계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생산기술과 이를 통제하는 지배집단의 관계 변화에 주목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 행위가 사회 문화 현상의 최종적인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포스터의 정보양식은 바로 마르크스의 ‘생산양식(mode of production)’을 차용해 만든 개념으로[20],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이 매개하는 사회적 관계 변화를 의미한다.[21] 예를 들어, 사이버 공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 개인의 정체

---

15) Poster, M., (The Mode of Information), 김성기, 『뉴미디어의 철학』, 민음사, 1994, 44쪽. 괄호 첨가.

16) Postman, N., (Technopoly: The Surrender of Culture to Technology), 김균,『테크노폴리: 기술에 정복당한 오늘의 문화』, 궁리, 2005, 13쪽.

17) Abercrombie, N., Hill, S. & Turner, B., *Dictionary of Sociology* (5th ed.), Penguin, 2006, p.252.

18) Mayer-Schönberger, V. & Ramge, T., *Reinventing Capitalism in the Age of Big Data*, Basic, 2018.

19) Poster, M., *The Mode of Information: Poststructuralism and Social Contex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p.6.

20) Macey, D., *Dictionary of Critical Theory*, Penguin, 2000, p.257; Poster, ibid., 1990, p.6.

성 등이 유동적이고 다중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정보양식에 의해 가능해진 현대 사회의 단면이다.[22]

3. 정보양식론에 대한 내재적 비판: 3가지 물음

포스터는 정보양식으로 생산양식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가 사실상 정보양식으로 생산양식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었다. 포스터는 마르크시즘을 시대착오적인 이론으로 규정하며 생산양식이 정보양식으로 대체된다고 주장하고[23], "생산양식을 배제, 부정하면서…자본주의 생산양식론으로부터 벗어나 독립된 사회분석의 준거"로 정보양식론을 내세우며 보수성을 드러낸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24] 그는 "인터넷(신기술)에 대한 열성"[25]으로 컴퓨터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CNC: Computer Networked Communication)[26]의 해방적 가능성에 주목하느라 자본주의의 모순을 외면한 채 포스트모더니즘을 칭송하는 미래주의자[27]일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를 폄훼하고 투쟁과 실천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 채 포스트모더니즘의 사변적 진술을 반복하며 인터넷을 추종하는 기술결정론자[28]라는 비판도 받았다.

---

21) Poster, ibid, 1989, p.126.

22) Poster, M., (The Second Media Age), 이미옥·김준기, 『제2 미디어 시대』, 민음사, 1995, 3쪽; Lyon, D., "Book Review: The Mode of Information," *Sociological Review, 39*(2), 1991, p.373; Poster, M., *What's Matter with the Internet?*,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1, p.48.

23) Dyer-Witherford, N., *Cyber-Marx: Cycles and Circuits of Struggle in High-Technology Capitalism*.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9, p.167.

24) 박동진, 「M. 포스터의 "생산양식에서 정보양식으로의 전환" 비판: 비판적 정보양식론의 관점을 중심으로」,『정치비평』, 7권, 한국정치연구회, 2000, 298, 302쪽.

25) Webster, F.,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4th ed.)), 조동기, 『현대 정보사회 이론』, 나남, 2016, p.698. 괄호 첨가.

26) 커뮤니케이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CMC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라고 부른다.

27) Lewis, J., *Cultural Studies: The Basics*, Sage, 2000, pp.432-435.

이런 비판자들은 포스터와 다른 이론적 입장에서 '외재적인 비판'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분석적 유용성을 옹호하는 연구자들은 사회 현상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추구한다. 반면에 '포스트 계열'의 이론가들은 총체성을 거부한다.[29] 이런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는 언제나 갈등과 비판을 수반한다. 포스터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은 유럽 지성사를 전공하고 소위 '포스트모던'의 프랑스 사상가들(보드리야르, 리오타르, 푸코 등)을 미국에 소개하는 데 앞장섰던 포스터의 정보양식론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맹렬하게 비판하는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상충하는 이론적 입장 사이에 주고받는 외재적 비판과 논쟁은 소모적인 측면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내재적인 입장에서 포스터의 정보양식론을 논리적으로 재검토한다. '내재적 비판'이란 서로 다른 이론적 관점에서 상대방의 시각을 반박하는 게 아니다. 포스터의 입장에 서서 그의 이론이 갖는 내적 일관성이나 논리적 오류를 점검하는 것이다.[30] 이는 외재적 비판보다 내재적 방법이 우월하고 옳기 때문이 아니다.[31] 그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이론적 요소들을 '안으로부터' 드러냄으로써[32] 포스터와 다른 이론적 입장에서 가해진 비판들의 편향성을 극복해보려는 취지에서 도입한 방법이다.

앞으로 전개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스터가 어떠한 기술 패러다임 위에 서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기술에 대한 그의 인식론적 입장 아래서 정보양식이 생산양식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논리적 모순

---

28) Walby, K., "Mode of Production versus Mode of Information: Marx, Poster, and an Argument for Anti-Capitalist Praxis", *Critical Sociology, 33*, 2007.

29) Bolter, J., "Postmodernism and Communication", W. Donsbach, ed., *The Concise Encyclopedia of Communication*, Wiley Blackwell, 2015, pp.481-482.

30) 강정인,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문학과지성사, 1994, 240, 293쪽;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24쪽.

31) 강정인, 위의 책, 298쪽.

32) 이종석, 위의 책, 25쪽.

없이 존재할 수 있는지 검증한다. 셋째, 정보양식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 후기 구조주의 언어이론이 포스터의 기술 패러다임과 양립 가능한지를 마지막으로 검토한다. 3가지 물음에 대한 답변을 종합하면 포스터의 이론적 문제점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II. 정보양식론에 대한 3가지 차원의 분석

1. 비판이론가들과 포스터의 기술 패러다임에 관한 논의

포스터의 이론을 내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그의 기술 패러다임을 무엇으로 간주할 수 있을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술 패러다임을 구분하는 몇 가지 요건을 기존의 논의로부터 도출해야 한다. 아울러 비판이론가들의 기술 패러다임을 포스터가 어떻게 진단하는지도 정리해야 한다. 포스터가 비판이론가들을 비판하는 지점을 파악해야 비로소 그와 대립하는 포스터의 이론적 입장을 분류하고 평가하는 데 일관적으로 적용 가능한 논리적 체계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비판이론가들의 사상적 모태인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적 유물론에 대한 포스터의 설명을 따라가 보자.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따르면[33], 생존을 위한 물질적 요소들의 우선성은 모든 역사의 조건이자 기초에 해당한다.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산양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적 유물론(historical materialism)은 생산양식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생산과정과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인간 역사의 전개과정을 서술한다. 그런데 포스터가 보기에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가들도 사적 유물론의 도식적인 세계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34] 포스터의 평가에 따르면, 그

33) Marx, K. & Engels, F., *The German Ideology*, Progress, 1976, pp.47-48, 61.

34) Poster, M., *Foucault, Marxism and history*, Polity, 1984, pp.45-46; Poster, ibid., 1989, p.124.

들은 문화의 상대적 자율성을 존중하고 토대와 상부구조 사이의 일방적 관계보다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경제환원론을 경계했지만[35] "미디어를 생산양식의 연장선에서 이해"[36]함으로써 "사적 유물론의 근본적인 전제(인간 생존에 필요한 생산양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를 설명하는 시각)"[37]을 버리지 못했다.

문화의 힘보다 경제적 토대를 중시하는 사적 유물론의 전제에 동의한다면, 생산수단을 가진 자는 사회에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비판이론가들이 상대적 자율성이 있다고 여기는 상부구조에 속한 대중문화는 문화의 생산수단이나 도구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보다 그것들을 가진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런 자본가들의 문화적 생산수단으로 사용되는 미디어는, 자본가 계층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대중에게 전파하는, 투명하고 중립적인 도관(conduit)에 지나지 않는다. 프랑크푸르트학파가 "문화산업의 대중 조작" 문제에 몰두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38]

비판이론가들은 해방과 혁명의 기획을 위해서 문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러나 포스터의 입장에서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비판이론가들이 대중문화가 사람들을 기존 사회에 무비판적으로 동화시키는 "사회적 접착제(social cement)"[39]라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비판이론가들 중 특히 아도르노가 선호했던 프루스트, 베케트, 쇤베르크 같은 고급문화의 계몽성이든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재즈 같은 대중문화의 저속성이든, 자본의 투입 없이, 자본가의 후원 없이 생산될 수 없다. 그럼에도 비판이론가들은 대중매체가 미디어를 소유한 자본가나 생산자의

35) Kellner, D., *Critical Theory, Marxism and Modernity*, Polity, 1989, p.10.

36) Poster, 김균, ibid, 48쪽.

37) Poster, ibid., 1984, p.46. 괄호 첨가.

38) Poster, ibid., 1990, p.16.

39) Held, D., *Introduction to Critical Theory: Horkheimer to Habermas*, Polity, 1980, p.104.

의도가 담긴 메시지를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중립적인 수단이자 '문화적 기구(cultural apparatuses)'에 불과하다는 유물론적인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40] 그렇지 않았다면 "(라디오와 텔레비전 같은 대중매체는) 명령의 언어를 (일방적으로 전달함으로써)…개인의 저항성을 약하게 하고… 미디어는 대중을 우매하게 만드는 효과"[41]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포스터가 비판하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기술 패러다임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기술 패러다임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방식은 비슷한 면도 있지만, 학자의 이론적 성향이나 학파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기술결정론(technological determinism)은 규범성, 법칙성, 의도하지 않은 결과 등 3가지 관점에서 구분되기도 한다. 이 중에서 사회변화를 이끄는 기술발전이 자연법칙과 유사한 논리에 따라 이뤄지며, 여기에 사회문화적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기술 법칙성 해석(nomological interpretation of technology)'만이 진정한 기술결정론이라는 관점도 있다. 여기에선 '경성/연성 결정론(hard/soft determinism)'을 부정한다.[42]

미디어 생태학(media ecology)에서는 기술 결정력의 강도나 세기(intensity)에 따라 결정론을 일종의 연속체로 인식한다. 연성 결정론은 미디어가 사회변화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지만, 기술 이외의 다른 요소들이 끼친 영향도 고려한다. 반면, 경성 결정론은 오직 기술만이 사회변화와 역사의 핵심 변인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인간, 사회, 문화 등 비기술적 요인들이 개입할 여지를 원천봉쇄한다. 기술결정론의 연속체 중간에 놓인 문화·기술 공생론은 인간과 기술, 미디어의 상호작

40) Kellner, ibid, pp.128, 144; Lewis, ibid, p.91.

41) Poster, M., *The Second Media Age*, Polity Press, 1995, pp.6-8. 괄호 첨가.

42) Bimber, B., "Three Faces of Technological Determinism", Smith, M. & Marx, L. eds., *Does Technology Drive History?: The Dilemma of Technological Determinism*, MIT Press, 1994, pp.79-100.

용을 지향하는 중도적 태도를 유지한다.[43]

기술의 사회구성주의자로 꼽히는 앤드류 핀버그(Andrew Feenberg)는 기술결정론의 요건으로 2가지를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기술발전의 패턴은 고정돼 있고 모든 사회가 이 패턴을 따르기 때문에 기술의 자율적 논리에 따른 사회발전의 흐름은 정치, 문화 등 다른 요소들이 막을 수 없다. 기술에 대한 사회의 적응은 일종의 명령이며 기술에 적응하는 것이 기술의 필요성보다 앞선다고 생각할 때 이를 가리켜 기술결정론이라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44] 기술결정론은 단선적인 기술의 자율적 작동 논리를 옹호한다. 또한 기술이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전제 위에 있는 패러다임이다.[45]

이처럼 기술결정론의 정의와 구분 방식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술결정론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성은 도출할 수 있다. 대상을 설명할 때 복잡하고 난해한 방법보다 가장 간략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간결함의 원칙(principle of parsimony)"[46]에 따라, 기술결정론에 관한 여러 논의를 간추려서 3가지 요소로 압축할 수 있다.

기술결정론은 기술이나 미디어를 정보나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한 중립적이고(neutral), 투명하며(transparent), 가치가 배제된(value-free) 수단이나 도구로 보지 않는다.[47] 그런 점에서 '기술의 중립성'이 허용되

---

43) Lum, C. M. K, "Notes Toward in Intellectual History of Media Ecology", C. M. K. Lum ed., *Perspective on Culture,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The Media Ecology Tradition*, Hampton Press, 2006, p.34; Cali, D., *Mapping Media Ecology*, Peter Lang, 2017, p.25.

44) Feenberg, A., *Critical Theory of Techn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pp.122-123.

45) Feenberg, A., *Between Reason and Experience: Essays in Technology and Modernity*, MIT Press, 2010, pp.8, 13.

46) Wimmer, R, & Dominick, J., ibid, p.27.

47) Lum, ibid, p.32.

지 않는다. 기술의 중립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것들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기술의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술의 자율성을 강조할수록 기술은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요소들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48] 기술결정론이라는 패러다임에서 기술은 인간의 의지나 사회적 개입과 무관하게 "자기 생성 과정(self-generating process)"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49] 인간의 통제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다.

도구주의의 속성은 기술결정론과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도구주의라는 패러다임에서 기술은 인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인간의 통제가 가능하다. 인간이 기술을 통제하려면 인간과 사회로부터 독립된 기술의 자율성은 허락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구주의는 "기술 혁신을 통해 자본 축적을 도모하는 자본가와 기업가의 이익에 봉사하는 경향"[50]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목적에 봉사하기 위해 통제 가능한 기술의 중립성과 도구성은 인간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의 개입을 불허하는 기술의 자율성과 양립할 수 없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비판이론가들에 대한 포스터의 평가와 그의 기술 패러다임을 정리해보자. "인간해방의 옹호자들"인 비판이론가들이 "기술과 문화의 관계에 대해 기술결정론자"[51]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포스터의 평가는 타당한가? 기술결정론의 3가지 요건에 비춰보면, 비판이론가들의 기술 패러다임은 결정론보다는 오히려 도구주의에 가깝다고

48) Feenberg, A., *Questioning Technology*, Routledge, 1999, p.9.

49) Dusek, V., *Philosophy of Technology: An Introduction*, Blackwell, 2006, pp.3, 84; Winner, L., *Autonomous Technology: Technics-out-of-Control as a Theme in Political Thought*, MIT Press, 1977, p.61.

50) Winner, L., (Autonomous Technology), 강정인, 『자율적 테크놀로지와 정치철학』, 아카넷, 2000, 468쪽.

51) Poster, ibid, 1995, p.8.

말해야 논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 포스터는 비판이론가들이 대중매체라는 기술의 영향력에 우매하고 무력한 대중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굴복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들을 기술결정론자로 봐야 한다고 평가한다.[52] 하지만 이는 미디어를 소유한 자들의 이념적 의도나 상업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미디어가 기술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기술의 자율성, 인간의 통제 불가능성, 기술 중립성의 부정을 표방하는 기술결정론의 요건을 논리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한다.

예컨대, 라디오에서 나오는 대중음악의 획일성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양성을 훼손하며 전체주의적인 문화를 부추기고[53] 지배에 대한 저항을 잠재우며 현재 상황에 순응하도록[54] 한다는 아도르노의 견해는 기술 자체의 명령이 아니라 대중매체에 그런 콘텐츠를 담은 제작자의 의도이며 최종적으로는 그 제작자를 고용한 자본가의 '보이지 않는 명령'이라고 해야 타당하다. 이는 표면적으로 대중매체라는 기술의 효과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매체를 상업성이든 특정 가치든 인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자본에 따라 움직이거나 자본을 가진 인간의 계획이나 의도에 있다. 이런 과정에 미디어의 자율성이 개입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이를 가리켜 비판이론가들이 기술결정론에 빠져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는 지적이다. 기술결정론의 판별 기준으로 평가하자면, 비판이론가들은 도구주의자들이고, 그들을 비판하는 포스터 자신은 기술결정론자로 분류돼야 포스터의 주장은 논리적 일관성을 잃지 않을 수 있다.

---

52) Poster, ibid., 1995, pp.6-8.

53) Poster, ibid, 1995, pp.7-8.

54) Mattelart, A. & Mattelart, M., *Theories of Communication: A Short Introduction*, Sage, 1998, p.60

2. "정보양식은 생산양식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명제의 무의미성

> "기술은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대답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기술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은 인간 행동의 하나"라는 것이다…기술은 하나의 수단이며 인간 행동의 하나라고 보는 기술에 대한 통념을 우리는 기술의 도구적·인간학적 규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55]

기술결정론의 논리적 구성요건에 따라 비판이론가들이 도구주의자라면, 그들을 비판하는 포스터는 이론적으로 기술결정론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 남은 문제는 포스터가 자신의 인식론적 입장에 관해 직접 언급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실제적인 발언과 기술결정론의 기준에 의해 논리적으로 도출된 그의 기술 패러다임을 비교하면 그의 이론적 논리에 하자가 없는지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터는 논리적인 면이나 실질적인 면에서 기술결정론자로 간주할 수 있나?

포스터는 자신의 기술 패러다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 그는 "정보양식 개념은 기술결정론자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56] 즉, 자신은 기술결정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포스터 자신이 기술결정론자가 아니라고 진술했으므로, 정보양식은 기술결정론의 패러다임과 다른 이론적 노선에 서 있어야 한다. 그럴 경우, 포스터는 기술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인간의 의지와 목적에 따라 기술이 중립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수용해야 한다. 이는 정보양식론이 도구주의 패러다임과 논리적 친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논리적 차원에서 그는 기술결정론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그의 발언에 따르면, 기술결정론자가 아니다. 논리상의 모순이 발생한다. 둘째, 정보양식이 기술결정론과 무관하

---

55) Heidegger, M., (Die Technik und die Kehre), 이기상, 「기술에 대한 논구」,『기술과 전향』, 서광사, 1993, 17쪽.

56) Poster, ibid, 1989. p.130.

다고 주장해놓고, 그래서 포스터 자신이 도구주의 패러다임에 속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도구주의자로 분류되는 비판이론가들을 비판하는 것에 아무런 논리적 문제는 없는가? 가령, 도구주의자가 자신과 동일한 기술 패러다임을 따르는 도구주의자를 도구주의자라는 이유로 비판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가? 포스터의 이 같은 진술은 기술 패러다임의 차원에서 의미 있는 문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어떤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 표현만 달리해서 실질적 의미는 없고 언제나 반드시 참인 명제나 진술을 "동어반복(tautology)"이라고 부른다.[57] "정보양식이 생산양식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포스터의 진술은 논리적으로 무의미한 동어반복에 해당한다. 생산양식의 기술 패러다임은 도구주의와 친화성이 있고, 도구주의는 포스터의 정보양식과 동일한 인식론적 입장을 공유한다. 결과적으로 생산양식과 정보양식 모두 도구주의라는 뿌리에서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 생산양식과 정보양식의 기술 패러다임이 도구주의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정보양식이 생산양식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나? 도구주의가 도구주의를 대체하지 않고, 또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히 참인 진술이라서 아무런 정보나 의미를 전해주지 못하는 동어반복이 아닌가?

이론의 논리적 일관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보양식과 생산양식의 관계 혹은 가상의 가계도를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다. 정보양식과 생산양식은 도구주의라는 동일한 '인식론적 뿌리'에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존재론적 속성은 유사하다. 외면적 지향성은 다르다. 생산양식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도구주의의 후손일 것이다. 기술적 도구로서의 미디어가 대중을 지배하는 자본의 힘에 철저히 종속돼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보양식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도구주의의 자손일 수도 있다. 결과를 확실히 보장할 수 없지만, 인터넷의 불확실한 가능성을 사회 문화적 참여로 전유하는 능동적 실천을 중시하기 때문이다.[58]

---

57) Munitz, M., *Contemporary Analytic Philosophy*, Macmillan, 1981, pp.198, 207.

3. 정보양식의 패러다임과 양립 불가능한 언어이론

지금까지의 논리적 분석에 의하면, 정보양식과 생산양식은 도구주의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포스터는 정보양식에 적합한 언어이론과 생산양식에 어울리는 언어이론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여기서는 정보양식과 연결되는 언어이론의 속성이 정보양식의 기술 패러다임과 양립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흔히 말하는 '언어의 재현 속성(representational character of language)'[59]이 위세를 떨칠 때만 해도 말과 사물은 고정적인 대응 관계(correspondence)를 맺고 있었다. 언어는 실물의 대상을 거울처럼 반영했으며 "중립적이고 투명하며 가치가 배제된 도관"[60]이었다. 실물 세계의 의미를 왜곡 없이 전달해야 재현의 언어가 제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여겨졌다.[61] 이런 맥락에서 언어의 재현론은 기술의 도구주의 패러다임과 유사한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재현의 역할을 하는 언어는 인간이 전달하려는 의미를 목적지까지 손실 없이 실어나르는 중립적인 도관의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도구주의 기술 패러다임 역시 인간의 의도를 방해하지 않고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인간의 통제를 받는 도구적 중립성을 지향한다.

포스터에 의하면, 전자적으로 매개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인터넷의 사회 문화적 현상이 확산되면서 유동적이며 개방적이고 '미결정적인(underdetermined)' 사이버 공간의 양상[62]을 설명하기 위해 언어이론에도 변화가 생겼다. 언어는 외부 세계의 실물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존

58) Poster, ibid., 2001, pp.17, 48; Poster, M., "Consumption and Digital Commodities in the Everyday", *Cultural Studies, 18*(2/3), 2004, p.418.

59) Poster, ibid, 1990, p.12.

60) Lum, ibid., p.32.

61) Poster, ibid., 1990, p.12.

62) Poster, M., "Undetermination", *New Media Society, 1*, 1999.

재 이유를 찾지 않는다. '언어의 자율적 논리(autonomous logic of language)'가 부각되는 후기 구조주의 언어이론에서 기표는 기의와 지시 대상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이다. 서로가 의미의 '레퍼런스'가 되어주고 "자기 지시적인 언어기능(self-referential aspect of language)"을 수행하면서 '자가발전의 의미작용'을 일으킨다.[63] 의미는 언어의 내적 자율성에 의해 자의적으로 구성되는 '자기 생성의 결과물'이 된다. 외부 세계와 연결된 도관(언어)을 통해 의미를 부여받는 대상 의존적 부산물이 아니다.

포스터는 후기 구조주의 언어이론으로 정보양식을 설명한다. 이 두 가지가 비슷한 논리를 따른다고 보기 때문이다.[64] 그 논리란 기술 패러다임을 구분하는 3가지 요소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 앞서 기술의 자율성과 중립성, 인간의 통제로 도구주의와 기술결정론을 나눈 바 있다. 포스터에 의하면, 재현의 언어는 송신자의 의도와 메시지를 수신자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기 위해 도구주의와 마찬가지로 투명하고 중립적인 도관의 역할을 이행한다. 그 임무를 완수하려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도 안된다. 그러나 후기 구조주의 언어관이 적용되는, 컴퓨터가 매개된 커뮤니케이션 공간은 이와 다르다.

> 미결정(underdetermination)이란 용어로, 나는 내가 가상적이라고 부르는 사회적 객체들(예를 들면 하이퍼텍스트)이 복합성과 불확정성 수준이 한 단계 더 나아간 방식으로 중층결정된다는 것을 주장한다…그들은 행위자들에게 명확한 행로를 지시해 주지 않는다.[65]

---

63) Poster, ibid., 1990, p.13; Poster, ibid., 1995, p.32.

64) Poster, ibid., 1989, p.126; Poster, ibid., 1990, pp.5, 11.; Poster, ibid., 1995, pp.57-77.

65) Poster, M., (What's Matter with the Internet?), 김승현·이종숙,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날기 전에 인터넷을 생각한다』, 이제이북스, 2005, 31쪽.

후기 구조주의 언어이론은 외부대상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언어 자체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이 자율성은 송신자의 인간적인 통제와 사회적인 개입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므로 의미형성 과정이 개방적이며 결말이 불확실하다. 마치 트위터로 메시지를 날리거나 하이퍼텍스트를 연속적으로 클릭해 자료를 찾는 일과 유사하다. 어느 곳에 도착할지 모른다. 누가 이 메시지를 보게 될지, 수신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내가 보낸 메시지가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알 수 없고 통제하지 못한다. 기술결정론의 구성요건에 따르면, 기술의 진행 방향은 인간이 바꿀 수 없다. 인간은 기술의 발전이 만들어 놓은 경로를 따라간다.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 기술의 자율성은 인간에게 불확실함을 안겨준다. 자율성을 가진 기술은 투명하고 중립적인 도관이 아니다. 인간의 의도나 목적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것이 기술결정론의 특징이고 후기 구조주의적인 언어의 자율성에 내포된 속성이다.

이 글에서 생산양식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비판이론가들을 도구주의자로 분류한 바 있다. 비판이론가들의 그런 점을 지적하며 정보양식을 주창한 포스터가 스스로 기술결정론자임을 부정한 상태에서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도구주의자로 편입돼야 한다. 도구주의자들은 기술이나 언어의 자율성은 부정하되 그것에 대한 중립성과 인간의 통제는 수용한다. 그런 포스터가 언어의 자율적 의미작용을 중시하는 후기 구조주의 언어이론으로 정보양식을 설명하는 것은 논리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도구주의의 이론적 노선에선 기술의 자율성은 부정되고 기술은 인간의 목적을 실현하는 중립적 수단으로 여겨진다. 이는 언어의 자율성을 추구하며 의미 전달의 중립적 도구로 사용되는 언어를 부정하는 후기 구조주의적 언어이론과 인식론적 측면이나 논리적 차원에서 허용될 수 없다.

III. 나가는 말

이 글은 이론으로 현상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기성의 산업경제와 정보 중심의 새로운 경제 양식(공유경제)이 공존하며 갈등하는 국면을 계기로 삼아 이 둘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에 주목해 마크 포스터의 정보양식론을 내재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포스터의 이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판이론가와 비판이론가를 비판하는 포스터는 이론의 논리적 일관성을 고려할 때 도구주의자로 간주해야 옳다. 둘째, "정보양식이 생산양식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명제는 논리상 두 가지 양식 모두 도구주의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구주의가 도구주의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의미 없는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정보양식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도구주의에 가깝다면, 생산양식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도구주의에 해당한다. 셋째, 논리적으로 볼 때 정보양식은 도구주의이며 도구주의는 기술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인간의 개입과 기술의 중립성을 표방한다. 포스터는 정보양식을 후기 구조주의 언어이론으로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그 언어관은 송신자의 의도를 타인에게 왜곡 없이 전달하는 언어의 도구적 기능보다 언어의 자율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기술의 자율성을 거부하는 정보양식을 언어의 자율성을 긍정하는 후기 구조주의 언어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양립 불가능하다.

폴란드 태생의 러시아계 미국 경제학자 에브시 도마(Evsey Domar)는 이론에 대해 인상적인 말을 했다. "무수히 많고 복잡한 사실들의 덩어리, 이것을 현실이라고 부르는 데, 모델이나 이론을 구성한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 중에서 다루기 쉬운 몇 가지 간단한 요점들을 재빨리 낚아채는 행위이다. 그런 다음, 그 요점들을 교묘한 방식으로 결합하면 그것이 현실 그 자체를 대체하게 된다."[66] 현실에서 도출된 이론이나 개념이 되레 현실

66) Warsh D., *Knowledge and the Wealth of Nations: A Story of Economic Discovery*, W. W. Norton, 2006.

과 바꿔치기 되는 '주객전도' 현상이 학문의 세계에선 일어난다. 실천 감각보다는 이론적 모델이, 현실에 대한 모델보다 모델의 현실[67]이 더욱 주목받는 아이러니는 이론적 작업, 개념적 탐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의구심을 낳는다. 마누엘 카스텔(Manuel Castells)의 작업이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론적 정교함 뿐만 아니라 경험적 자료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의 성향 때문이다. 카스텔처럼 "사실을 무시하고 고집스럽게 이론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68] 현실과 이론이 다를 때 애써 정리한 이론, 힘들게 만든 모델, 잘 조합된 개념을 버리는 것은 아까운 일이다. 억지스럽더라도 이론에 부합하도록 사실을 취사선택해 그럴듯한 분석과 해석을 내놓고 싶은 유혹을 단 한 번이라도 받지 않은 연구자들이 있을까?

이론 분석에 관한 글을 써놓고 맺음말에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론이나 개념을 배격하고 사실에만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현상에 이론을 적용하는 연구에서 가장 성급해질 때는 적용할 이론을 고르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이론이 정해져야 연구의 뼈대가 잡히고 자료를 모을 수 있다. 하지만 조급하게 선택한 이론은 연구가 곤경에 처할 때 가장 먼저 흔들린다. 현실에 견주어보며 이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해보지 않았으니 이론 선택에 문제가 없었는지 계속 반추하며 의심의 늪으로 빠지게 된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론을 무턱대고 적용하기에 앞서 이론의 내적 견고함이나 논리적 일관성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보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 논문의 의의를 말한다면, 첫째, 이론의 선택과 적용 앞에서 조바심을 내지 말고 이론이나 개념이 연구에 사용될 만큼 구조적으로 양호한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 논문이 권장할 만한 모범사례로 적당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으나, 이 글에서 구현

67) Bourdieu, P., *Logic of Practice*, Polity, 1990, pp.39, 81.

68) Webster, ibid, 248쪽.

된 간단한 방식으로도 이론과 개념의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한 중세사 연구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론이나 개념 분석을 실행하는 데 최신 유행하는 이론만이 적합한 건 아니며 자신의 문제의식과 현상에 적합하다면 어떤 이론이라도 무방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우리가 깨어 있다면 과거의 어떤 부분도 죽은 게 아니다.”[69]

69) McLaughlin, M. & Ross, J., eds., *Portable Medieval Reader*, Penguin, 2010. (EPUB).

참고문헌

강정인,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문학과지성사, 1994.

박동진, 「M. 포스터의 "생산양식에서 정보양식으로의 전환" 비판: 비판적 정보양식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정치비평』, 7권, 한국정치연구회, 2000.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Curran, J., Fenton, N. & Freedman, D., (Misunderstanding the Internet (2nd ed.)), 김예란·박성우, 『인터넷, 신화를 넘어 공공성으로』, 컬처룩, 2017.

Heidegger, M., (Die Technik und die Kehre), 이기상,『기술과 전향』, 서광사, 1993.

Poster, M., (The Mode of Information), 김성기,『뉴미디어의 철학』, 민음사, 1994.

_____, (The Second Media Age), 이미옥·김준기, 『제2 미디어 시대』, 민음사, 1995.

_____, 김균, 「미디어 시대의 문화 변동, 그 양상과 의미」(인터뷰), 『현대사상』, 3권 1호, 민음사, 1999.

_____, (What's the Matter with the Internet?), 김승현·이종숙,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날기 전에 인터넷을 생각한다』, 이제이북스, 2005.

Postman, N., (Technopoly: The Surrender of Culture to Technology), 김균,『테크노폴리: 기술에 정복당한 오늘의 문화』, 궁리, 2005.

Webster, F.,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4th ed.)), 조동기, 『현대 정보사회이론』, 나남, 2016.

Winner, L., (Autonomous Technology), 강정인, 『자율적 테크놀로지와 정치철학』, 아카넷, 2000.

Wittgenstein, L., (Philosophische Untersuchungen), 이영철, 『철학적 탐구』, 서광사, 1993.

Abercrombie, N., Hill, S. & Turner, B., *Dictionary of Sociology* (5th ed.), Penguin, 2006.

Bimber, B., "Three Faces of Technological Determinism", Smith, M. & Marx, L. eds., *Does Technology Drive History?: The Dilemma of Technological Determinism*, MIT Press, 1994.

Bolter, J., "Postmodernism and Communication", W. Donsbach, ed., *The Concise Encyclopedia of Communication*, Wiley Blackwell, 2015.

Bourdieu, P., *Logic of Practice*, Polity, 1990.

Cali, D., *Mapping Media Ecology*, Peter Lang, 2017.

Cannon, S. & Summers, L., "How Uber and the Sharing Economy Can Win Over Regulators", *Harvard Business Review Digital Articles*, October 13, 2014.

Cramer, J. & Krueger, A., "Disruptive Change in the Taxi Business: The Case of Uber",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 Proceedings, 106*(5), 2016.

Dusek, V., *Philosophy of Technology: An Introduction*, Blackwell, 2006.

Dyer-Witherford, N., *Cyber-Marx: Cycles and Circuits of Struggle in High-Technology Capitalism*.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9.

Feenberg, A., *Critical Theory of Techn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_____, *Questioning Technology*, Routledge, 1999.

_____, *Between Reason and Experience: Essays in Technology and Modernity*, MIT Press, 2010.

Geissinger, A., Laurell, C. & Sandström, C., "Digital Disruption beyond

Uber and Airbnb—Tracking the Long Tail of the Sharing Economy",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155*, 2020.

Held, D., *Introduction to Critical Theory: Horkheimer to Habermas*, Polity, 1980.

Kellner, D., *Critical Theory, Marxism and Modernity*, Polity, 1989.

Lewis, J., *Cultural Studies: The Basics*, Sage, 2000.

Lum, C. M. K, "Notes Toward in Intellectual History of Media Ecology", C. M. K. Lum ed., *Perspective on Culture,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The Media Ecology Tradition*, Hampton Press, 2006.

Lyon, D., "Book Review: The Mode of Information," *Sociological Review, 39*(2), 1991.

Macey, D., *Dictionary of Critical Theory*, Penguin, 2000.

Marvin, C., *When Old Technologies Were New: Thinking About Electric Communication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Marx, K. & Engels, F., *The German Ideology*, Progress, 1976.

Mattelart, A. & Mattelart, M., *Theories of Communication: A Short Introduction*, Sage, 1998.

Matzler, K., Veider, V. & Kathan, W., "Adapting to the Sharing Economy", *MIT Sloan Management Review*, *56*(2), 2015.

Mayer-Schönberger, V. & Cukier, K., *Big Data: A Revolution that Will Transform How We Live, Work, and Think*,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3.

Mayer-Schönberger, V. & Ramge, T., *Reinventing Capitalism in the Age of Big Data*, Basic, 2018.

McLaughlin, M. & Ross, J., eds., *Portable Medieval Reader*, Penguin,

2010. (EPUB).

Miller, V., *Understanding Digital Culture* (2nd ed.), Sage, 2020.

Munitz, M., *Contemporary Analytic Philosophy*, Macmillan, 1981.

Poster, M., *Foucault, Marxism and history*, Polity, 1984.

_____, *Critical Theory and Poststructuralism: In Search of a Context*,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_____, *The Mode of Information: Poststructuralism and Social Contex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_____, *The Second Media Age*, Polity Press, 1995.

_____, "Undetermination", *New Media Society, 1*, 1999.

_____, *What's Matter with the Internet?*,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1.

_____, "Consumption and Digital Commodities in the Everyday", *Cultural Studies, 18*(2/3), 2004.

Srnicek, N., *Platform Capitalism*, Polity, 2017.

Sundararajan, A., *The Sharing Economy: The End of Employment and the Rise of Crowd-Based Capitalism*, MIT Press, 2016.

Tylor, E., *Primitive Culture: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Art, and Custom*, John Murray, 1871.

Walby, K., "Mode of Production versus Mode of Information: Marx, Poster, and an Argument for Anti-Capitalist Praxis", *Critical Sociology, 33*, 2007.

Warsh D., *Knowledge and the Wealth of Nations: A Story of Economic Discovery*, W. W. Norton, 2006.

Wimmer, R, & Dominick, J., *Mass Media Research: An Introduction* (6th ed.), Wadsworth, 2000.

Winner, L., *Autonomous Technology: Technics-out-of-Control as a Theme in Political Thought*, MIT Press, 1977.

「우버 기업가치 130조…'미국車 빅3'보다 커졌다」, 『매일경제』, 2018년 10월 18일자. URL: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8/10/650585/ (검색일 2020년 6월 21일).

〈ABSTRACT〉

Three Questions on the 'Mode of Information' in a Logical Quandary
–Revisiting Mark Poster's Theory in the Phase of Sharing Economy–

Kim, Kun Woo

This paper critically deals with Mark Poster's mode of information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Why this research focuses on this subject is that the success and failure of Uber based on Sharing Economy within the established industrial economy is correspondingly a parallel to or has an isomorphism with the theoretical statement addressed by him that "the mode of production is not replaced with the mode of information." There are several external criticisms on the mode of information from the epistemologically opposite stance to him. This article, however, makes an 'internal examination' of his theoretical arguments, especially of logical coherence of his theory related to technological paradigm. The result of the critical analysis of the mode of information as follows: First, the Critical Theorists regarded as technological determinists are logically considered as instrumentalists and so is he. Second, It is no more than tautological that "the mode of production is not replaced with the mode of information" on the ground that both the mode of information and the mode of production have an affinity with the instrumentalism. It can be said that the former is embedded in the positive and optimistic one in contrast to the latter in the negative and pessimistic

one. Third, the poststructuralist theory of language can not explain the logic of mode of information since the former emphasizes an autonomous and self-referential mechanism of language; the latter counts it as playing not only a neutral but an instrumental role of transmitting meaning. Therefore, the poststructuralist theory of language is logically incompatible with the mode of information. Also, all of this theoretical analysis of the mode of information shows it is crucial that theory should be scrutinized in logical respects before its hasty application to phenomena.

Key Words : Mode of information, Mode of production, Technological determinism, Instrumentalism, Poststructuralism, Mark Poster, Sharing economy